

〈11월〉 춥고 건조했던 11월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6.8도로 평년(7.6도)보다 0.8도 낮았다. 전반에는 기온 변화가 컸지만, 후반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추운 날이 이어졌다. 북태평양-베링해와 우랄산맥 부근에 형성된 두 상층 고기압 사이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일조시간이 평년(167.6시간)보다 38.8시간이나 많은 206.4시간으로, 관측 이래 최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강수량은 12.7mm로 평년(46.7mm)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11월 강수량으로는 2010년의 12.2mm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첫눈은 11월 15일 울릉도를 시작으로 11월 17일 서울과 북한전에서 관측됐다. 서울은 평년보다 나흘 빨랐다.

〈12월〉 지속적인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혹한' 이어져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0.2도로 평년(1.5도)보다 1.7도나 낮았다. 11월 중반에 시작된 음의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우랄산맥-카라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특히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2일에는 평년(2.1도)보다 8.1도 낮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6.0도)을 기록했다.

전국이 꽁꽁 얼면서 15일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나타났다. 이는 2016년(1월 26일)보다 42일 빠르고, 평년(1월 13일)보다 29일 빠른 것이다.

전국 강수량은 21.9mm로 평년(24.5mm) 대비 91%를 기록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다. 일조시간은 199.9시간으로 평년(169.4시간)보다 30.5시간 많아, 1983년(205.5시간)에 이어 최대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반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24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올랐다.

인구

■ 총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한국은 다출산 사회였다. 기반 산업인 농업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질병, 식량 부족, 보건·위생환경 불량 등으로 출생아의 생존율이 낮아 광복 이전의 인구 증가 속도는 그 이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계청이 공개한 '총조사 인구 총괄 자료(북한 인구 제외/이하 동일)'를 보면 1925년 인구는 1천300만5천931명에 불과했다. 1930년 1천390만805명, 1940년 1천562만7천186명, 1944년 1천656만5천317명까지 증가했다. 1949년에는 2천16만6천756명을 기록하며 2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전쟁 휴전 후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출산 붐이 일고 의

료·보건환경이 개선되자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1955년 2천150만2천386명, 1960년 2천498만9천241명, 1966년 2천915만9천640명을 기록했다.

1960년대 들어 정부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빠른 인구 증가가 빈곤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1970년 3천143만5천252명, 1975년 3천467만8천972명, 1980년 3천740만6천815명, 1985년 4천41만9천652명 등 인구 증가 속도는 한동안 가파르게 이어졌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아제한 정책, 국민의 가치관 변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1990년 4천339만374명, 1995년 4천455만3천710명을 기록해 증가 속도가 전에 비해 낮아졌다.

1996년 정부는 낮아진 인구 증가를 변화를 고려해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속도는 계속 떨어져 2000년 4천598만5천289명, 2005년 4천704만4천434명, 2010년 4천799만761명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총조사 인구는 5천126만9천55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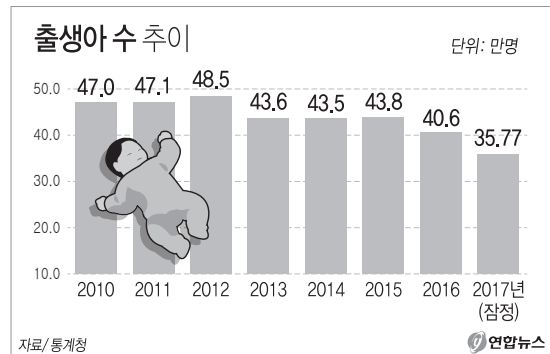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2004년 국가 의제로 설정했다. 2005년에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06~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평균 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인구 증가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70년 4,53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73년 4,070명, 1974년 3,770명, 1976년 3,000명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이후 1977년 2,999명, 1983년 2,060명을 기록하며 2명대로 내려앉았다. 1984년 1,740명으로 1명대로 접어들었고 2001년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시대가 됐다.

2017년에 합계출산율이 1.050명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때까지 17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졌다.

■ 출생

2017년 출생아는 국내 행정기관 등록 기준으로 35만7천7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출생아(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 감소한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4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을 기록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0.84)과 부산(0.98)은 합계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세종은 1.67을 기록하는 등 지역 편차도 컸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7.0명으로 2016년보다 0.9명(11.4%)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등 노산(老産) 경향이 심화했다. 2017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2016년보다 0.2세 높아졌다. 출산 시점 기준으로 산모의 평균 연령은 첫째 아이가 31.6세, 둘째 아이가 33.4세, 셋째 아이가 34.9세였다. 2016년과 비교하면 첫째·둘째·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평균 연령이 각각 0.2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구성 비율은 29.4%로 2016년보다 3.0%포인트 늘었다.

2017년 출생아를 출생 시점으로 구분하면 1월 출생이 전체의 9.8%로 가장 많았고 3월이 9.3%로 뒤를 이었다. 출생아가 가장 적은 달은 12월(7.0%)이고 11월(7.6%)이 뒤를 이었다.

■ 사망

2017년 국내외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행정 당국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4천800명(1.7%) 늘어난 28만5천600명이었다. 사망자 수 통계가 명확히 남아 있는 1983년 이후 35년 가운데 2017년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연간 사망자 수는 1983년 25만5천 명이었고 1984~2009년 25만 명 미만이었으며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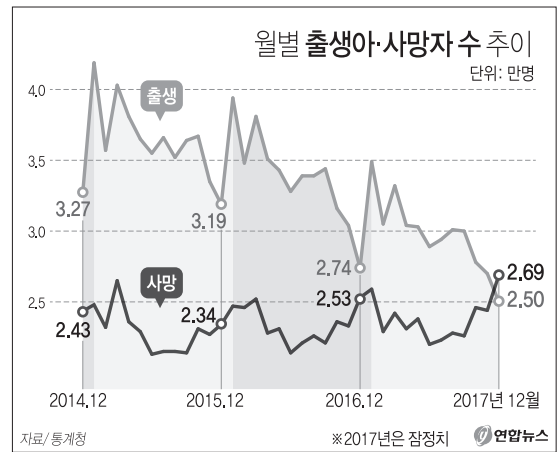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 집단에서 최근에 사망자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80대와 90대 이상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5.9%, 10.6% 증가했다. 반면 79세 이하의 전 연령층(10세 단위)에서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2017년 사망자 수는 남자가 15만4천400명으로 여자 사망자(13만3천300명)의 약 1.2배였다. 사망자 수의 남녀 비율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였다. 50~59세 남성 사망자는 2만700명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 사망자(7천 명)의 약 2.9배에 달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자의 경우 70대로 4만3천 명이었고, 여자는 80대로 5만3천 명이었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6.2%, 주택 14.4%, 기타(사회복지 시설, 산업장, 도로) 9.4% 순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7년 60.0%였는데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사망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함에 따라 인구 자연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017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전년보다 5만3천400명(42.6%) 감소한 7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2017년이 가장 작았다. 특히 12월에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2만5천 명, 2만6천900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자연감소(1천900명)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92년에 73만 명을 기록하는 등 1990년대에도 70만 명을 넘기는 해가 있었는데 최근 수년 사이에 급감했다.



■ 장래 인구 전망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0명으로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한국의 인구 전망도 달라졌다. 2016년까지의 인구 변화는 출생아 수가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는데 2017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예상 밖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1.050명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이 2065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추계할 때 만든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난 수준이다. 당시 출산율을 저위·중위·고위 등으로 분류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출생아가 가장 적은 저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2025~2030년에 합계출산율 1.07에 도달하는 것이 최저치라고 봤는데 2017년에 합계출산율(1.07)은 중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수준(1.18명)과 비슷했으나 2017년 합계출산율은 저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최저치보다 낮았다.

2017년처럼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수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6년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2032년에 총인구가 감소한다. 하지만 저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8년에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저위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보다 낮으므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수명과 국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태인 '최저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에 20.1%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시나리오 작성 당시 합계출산율 최저 수준은 2030년에 1.07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에 이보다 낮은 1.050을 기록함에 따라 앞으로 합계출산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혼인·이혼

2017년 혼인 건수는 26만4천5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

년보다 1만7천135건(6.1%) 감소했으며 1990년 이후 최저치였다. 연간 혼인 건수는 2000년 33만2천90건으로 2015년까지는 매년 30만 건을 웃돌았으나, 2016년 28만1천635건을 기록하며 30만 건이 처음 붕괴했다.

혼인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만6천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만3천800건, 경남이 1만6천 건, 부산이 1만5천 700건, 인천이 1만5천200건으로 뒤를 이었다.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2017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세종시(1천700건, 5.5% 증가)가 유일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일반 혼인율은 2017년에 남성이 12.0건으로 전년보다 0.8건 줄었고 여성은 11.8건으로 0.9건 감소했다. 연령별 혼인율은 30~34세 남성이 59.3건에서 56.4건으로, 25~29세 여성이 66.5건에서 60.6건으로 특히 많이 줄었다.

2017년 이혼 건수는 10만6천100건으로 전년보다 1천288건(1.1%) 감소했다. 1990년 이후 이혼은 2003년이 16만6천617건으로 정점이었다. 2017년 이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만6천900건이었고 이어 서울 1만7천100건, 경남 7천400건, 인천 7천 건 순이었다.

1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일반 이혼율은 2017년에 남성이 4.8건, 여성이 4.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0.1건씩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남성은 8.6건에서 8.3건으로, 여성은 8.9건에서 8.5건으로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0.8건에서 0.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혼인 지속기간에 따라 이혼을 분류하면, 15~19년간 혼인을 지속하고 2017년 이혼한 사례가 전년보다 13.5% 줄었다. 4년 이하의 결혼 생활 후 이혼한 사례는 12.1% 감소했다.

■ 기대수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증가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9.3년, 여자는 85.4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 3.9년, 여자 3.3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비교 시점을 무시하고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함)과 비교하면 여자가 2.3년, 남자가 1.4년 길었다. 한국인과 기대수명이 비슷한 국가는 남성의 경우 영국(79.2세, 2015년 기준), 프랑스(79.2세, 2015년) 등이고 여성은 프랑스(85.5세, 2015년), 스페인(85.8세, 2015년) 등이었다.

한국인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6.1년)는 OECD 평균(5.2년)보다 0.9년 길었으며 포르투갈(6.2년), 슬로베니아(6.1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 8.6년으로 정



▲ 2016년 출생아 기대수명 82.4년...건강수명은 줄어 (CG) <연한 뉴스TV 제공>

점을 찍었으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인 '기대여명'을 보면, 2016년 65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남자 18.4년, 여자 22.6년으로 OECD 평균(남자 17.9년, 여자 21.1년)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1.4(반올림 값)년 길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에는 OECD 평균보다 남자 1.3년, 여자 1.0년 짧았으나 고령층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20년 사이에 65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4.8년, 여자가 4.9년 늘었으며 OECD 평균은 남자가 3.0년, 여자가 2.5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80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남녀가 엇갈렸다. 80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남자 8.1년, 여자 10.2년으로 OECD 평균보다 남자는 0.1년 짧고 여자는 0.5년 길었다.

60세 한국인의 남은 수명이 10년 전과 비교해 3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으로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5년을, 60세인 여성은 27.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했다. 2006년 당시 60세였던 이들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2.9년 늘어났다.

2016년 출생아가 장래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로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심장질환이 11.8%, 뇌혈관 질환 8.8%, 폐렴 7.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2016년 출생아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5.5%, 여자가 38.8%였다. 남자의 경우 암 27.1%, 심장질환 10.1%, 폐렴 8.3%의 분포를 보였고 여자는 암 16.4%, 심장질환 13.0%, 뇌혈관 질환 9.4% 순이었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출생아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기간(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64.9년으로 2012년 출생아(65.7년)나 2014년 출생아(65.2년)보다 짧았다.